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① 09. ③ 10. ④
 11. ④ 12. ③ 13. ② 14. ② 15. ⑤ 16. ⑤ 17. ⑤ 18. ② 19. ④ 20. ①

1. 순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순자이다. 순자는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다. 순자는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化性起僞]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도가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③ 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④ 불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⑤ 맹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2.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값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하이에크는 노동 시장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② 하이에크는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모두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모두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3.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값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우렐리우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마땅한 방식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므로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이 덕에 따른 삶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외적인 좋음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태도 변화를 통해 덕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인간이 공동체 성원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4. 듀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값은 듀이, 을은 사르트르이다. 듀이와 사르트르는 모두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듀이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② 듀이는 유용성의 가치가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도덕적 인간도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사르트르는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 관습적 규범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5.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타당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②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보았다.

③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스피노자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다.

6. 에피쿠로스, 벤담, 밀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값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 병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이상인 공리의 실

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ㄷ). 에피쿠로스와 벤담과 밀은 모두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고통을 제거하려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에피쿠로스와 벤담과 밀은 모두 사려 깊음과 정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ㄴ. 에피쿠로스와 벤담과 밀은 모두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7.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선과 악의 갈림에서 이의 주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칠정은 기가 이의 주재를 벗어나면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ㄴ). 이이는 사단은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用]이라고 보았다(ㄷ). 이황과 이이는 모두 성리학자로서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와 기로 구성되어 존재한다고 보았다.

8. 슈페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슈페터이다. 슈페터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슈페터는 민주주의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슈페터는 일반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④ 슈페터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슈페터는 정치 엘리트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법과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9. 맹자와 장자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의 수양 방법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ㄷ). 맹자와 장자는 모두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맹자에 따르면 양지는 대인이 삶이 궁핍해진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 ㄴ.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여성혁명을 주장하였다.

10. 벌린과 비롤리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벌린, 을은 비롤리이다. 벌린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지만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롤리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법의 지배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벌린은 자유주의 사상가로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롤리는 공화주의 사상가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비롤리는 비자의적 권력인 법의 존재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비롤리는 타인에 의한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 권력의 지배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된다고 보았다.
- ⑤ 벌린과 비롤리는 모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1. 베이컨과 흄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베이컨, 을은 흄이다. 흄은 우리가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다고 보았다. 흄에 따르면 이처럼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을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ㄴ). 베이컨과 흄은 모두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수집된 사실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 ㄷ. 흄은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만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12. 칸트와 갈통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 을은 갈통이다. 갈통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를 구조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ㄴ). 칸트는 확정 조항이 담긴 영구 평화론을 통해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을 주장하였으며, 갈통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예방적 처방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평화 연맹에 각 국가의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ㄷ. 갈통은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도 폭력은 성립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지향하였다.

13.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기호로 형구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이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인간만이 지닌 성(性)인 영지의 기호는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④ 정약용은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⑤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14.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15. 왕수인과 주희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과 주희는 모두 진정한 앎을 실현하려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획득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③ 주희는 인(仁)을 측은지심의 실마리라고 보지 않았다.
- ④ 주희는 개별적인 도덕 실천보다 공리를 통한 앎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6. 유식 사상과 중관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유식 사상의 세친, 을은 중관 사상의 용수이다. 세친은 수행을 통해 식(識)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ㄴ). 용수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 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ㄷ). 세친과 용수는 모두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세친은 영원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이 자성(自性)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7.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자유 의지를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자율적 의지라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선의지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 보았으며 자기 행복의 추구가 이러한 선의지를 증대한다고 보지 않았다.
- ③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라고 보았으며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이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 ④ 칸트는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8.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위정척사 사상, (나)는 동학사상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보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를 옹호하였다.
- ③ 동학사상은 후천 개벽 사상을 통해 현세에서의 이상 세계 실현을 주장하였다.

④ 동학사상은 보국안민을 위해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동학사상은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였으므로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9. 홉스와 마르크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 을은 마르크스이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ㄱ).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공통의 강제력에 근거한다고 보았다(ㄴ). 홉스는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20. 혜능과 원효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혜능, 을은 원효이다. 혜능은 선종 사상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교외별전을 중시하였다. 혜능은 단박에 깨달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된다는 돈오돈수를 중시하였다. 혜능은 선종 사상가로 불립 문자와 이심전심 등을 강조하였고 원효는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혜능의 입장에 비해 원효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X, Y는 낮고 Z는 높다. ㉠이 정답이다. **정답 ①**